



2026. 9. 15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2년보다 높은 '역전 현상'

한국경제

<https://zrr.kr/5fMD0o>

은행들의 1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 안팎으로 올랐으나 장기 예금금리는 거의 올리지 않아 단기 예금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확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예금을 오랜 기간 붙잡아둘 필요가 없어진 영향

대형은행 예금금리 인상에도 잠잠한 인뱅...수신 여유에 엇갈린 셈법

머니투데이

<https://zrr.kr/EH3Y11>

5대 은행이 이달 들어 정기예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인뱅과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축소, 인뱅은 7~8월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은 만큼 이달 들어서는 대체로 관망
다만 대출 자산이 빠르게 늘어난 케이뱅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인터넷은행 3사의 수신 전략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

국내 은행 14곳, 대출 기준금리 0.72%p 내릴 때 실제 금리는 0.15%p 내려

조선일보

<https://zrr.kr/8xUMP3>

최근 3년간 은행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0.72%포인트 떨어졌지만 차주가 실제 부담한 대출금리는 0.15%포인트 내리는 데 그친 모습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실질 가산금리가 0.57%포인트 상승하면서 대출 기준금리 하락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기 때문

금융지주 '연임 동맹' 제동...회장·사외이사 '성적표' 받는다

서울신문

<https://zrr.kr/gLK2Wn>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당국은 금융감독원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주체로서 모범규준을 통해 각사가 자체 평가한 CEO 성적표를 금감원이 받아보도록 하겠다는 구상

설익은 ISA 개편안에 '날벼락'...계좌 해지 3배 '경충'

이데일리

<https://zrr.kr/cosw0K>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당국은 금융감독원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 주체로서 모범규준을 통해 각사가 자체 평가한 CEO 성적표를 금감원이 받아보도록 하겠다는 구상

국내 넘어 미래 먹거리 찾는다...증권사 '글로벌 동맹' 확산

신아일보

<https://zrr.kr/4dz3no>

최근 하나증권은 업비트 글로벌, 삼성증권은 BNY, 신한투자증권은 UMI 벤처스와 각각 MOU(업무협약)를 체결
디지털자산과 AI(인공지능), 데이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해외 전문기업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

해외충격파 실손, 7일 간격 안 지켜도 '평균 주 1회'면 혜택

뉴스1

<https://zrr.kr/ACY6jL>

최근 하나증권은 업비트 글로벌, 삼성증권은 BNY, 신한투자증권은 UMI 벤처스와 각각 MOU(업무협약)를 체결
디지털자산과 AI(인공지능), 데이터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해외 전문기업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

디지털보험사, 수익성 개선 고비...적자 폭 줄었다

전자신문

<https://zrr.kr/npCIG5>

카카오페이손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올해 상반기 나란히 적자 폭을 축소
디지털보험사 특유 상품 구조와 비대면 영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보장성보험을 확대하고 비용 효율화에 나선 효과가 손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습

클래리티 법 착초 위기에 '윤리 조항' 넣은 공화당...연내 입법 '청신호'

뉴스1

<https://zrr.kr/9Tur3S>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클래리티 법'에 대해 공화당이 법안 통과와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겨냥할 수 있는 윤리 규제에 동의하면서 민주당 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확대

거래소 '해외 스테이블코인 검증' 이해상충 논란...“가이드라인 필요”

인사이트코리아

<https://zrr.kr/82aBDa>

국내에서 유통되는 USDT·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적격성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평가하는 방안이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의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 사업자 영업행위, 거래지원 기준 등 시장 전반의 규율 마련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상환 구조 역시 주요 논의 대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